

피아노 듀오와 함께 봄이 오나



‘클랑플레어’ 오늘 여수·4월 5일 광주 금호아트홀
광주피아노두오협회 오늘·광주대 음악학과 30일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제주지부 정기 연주회가 열린 지난 26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베토벤 교향곡 전곡시리즈 I’을 내건 이날 공연 피날레는 교향곡 5번 ‘운명’이 장식했다. 이날 4명의 피아니스트는 두 대의 피아노에 앉아 연주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1·4악장을 연주했다.

‘빠바바밤’으로 시작하는 운명의 도입부가 약 10초간 공연장을 가득 채울 때 피아니스트 서윤진씨가 지휘하는 듯한 손짓을 했다. 관현악의 방대한 악상을 4명이 분담하는 셈이기에 한 명이 지휘자로 나선 것이다.

한 대의 피아노를 두 명이 연주하거나 4명이 두 대를 연주하는 ‘피아노 듀오’ 연주가 잇따라 광주·전남에서 열린다.

피아노 앙상블 ‘클랑플레어’(Klangflair)는 여수 예올마루 소극장(29일 오후 7시 30분)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4월5일 오후 7시 30분)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김규리, 김태희, 정다희씨로 구성된 클랑플레어는 고전 음악과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현대음악 등을 피아노 듀오 연주로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바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로 문을 열고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생상스 ‘베토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존 아담스 ‘할렐루야 교차로’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한경진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가 작곡한 ‘8개 손을 위한 Motion and Lines VII’를 문현옥 전남대 교수를 포함한 4명이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한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50-6514-2987.

광주피아노두오협회는 29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10회 신인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연다. 비제 ‘카르멘 환상곡’(김예랑·박건희), 생상스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폴로네이즈 작품 77’(김신영·정민경), 볼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에텐의 동산 I·Ⅲ’(조은지·정다희), 프로코피에프 ‘신데렐라 모음곡 작품 87 II·Ⅷ’(정희진·이명규) 등이 무대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4악장을 김형미·김희매·임인수·김정아가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10-3642-1621.

광주대학교 음악학과(학과장 김정아)는 개설 25주년을 맞아 피아노앙상블연주회를 연다.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무대는 이 대학 피아노 전공 동문들이 꾸민다. 지난 2014년 음악학과 개설 20주년을 앞두고 피아노 전공 동문들이 결성한 모임 ‘GUP’(Gwangju University Piano)의 6번째 무대이다.

전문 반주자·교육자 등으로 활동하는 동문 18명(2000~2015년 입학)이 2대의 피아노를 2명 또는 4명이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을 선보인다.

먼저 브람스의 ‘5개의 왈츠 작품 39’를 백선아·유혜령씨가 연주하며 문을 연다. 이어 쇼스타코비치의 ‘콘체르티노 작품 94’(최성희·김성아), 볼름의 ‘에텐의 정원’(이유라·최원영) 소품의 ‘룬도 다장조 작품 73’(조아라·정인지), 라흐마니노프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17’(김형미·김혜진)를 들려준다. 전석 초대. 문의 010-8858-9208. /백희준 기자 bhj@



위부터 문현옥, 정다희, 정인지.

상상정원

광주문예회관 내달 28일까지
강동호·김종일 등 참여



김미인·서정국 작 ‘까멜리거’

‘재미있는 상상의 나라를 떠나.’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상’의 이미지를 만나는 ‘상상정원’전이 오는 4월28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호, 김미인·서정국 등 7명의 작가(팀)가 참여했다.

강동호 작가는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화려한 색채와 리듬감 있는 형태의 풍경으로 선보인다. 상상 속 풍경에서는 인간과 동·식물, 기계와 생물 등 여러 존재가 뒤섞여 있으며 이런 풍경은 인간사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한다.

동물과 식물이 혼합된 형태의 새로운 생명체를 보여주는 김미인·서정국 작가는 ‘신중생물’ 시리즈를 선보인다. 작품 ‘까멜리거’는 호랑이의 몸통에 머리는 동백꽃을 결합시키고 ‘몽상’은 양과 원숭이를 합체한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냈다.

김연호 작가는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기록하는 일종의 그림일기를 그려낸다.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을 화면 속으로 다시 재구성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들을 표현한다. 김종일 작가는 형형색색 톱나비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하

늘을 나는 새는 물속의 물고기를 부러워하고, 물속의 물고기는 하늘의 새를 동경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화면에 풀어냈다.

박일정 작가는 잘 반죽한 흙을 이용해 산과 나무, 자연의 풍물을 빚어내고, 질박한 도자 표면에 붓으로 일일이 채색해 구워낸 온화한 느낌의 ‘도화’(陶畵)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순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화가 최미연 작가가 그려내는 세계는 현대인이 꿈꾸는 유토피아이다. 작가는 겸재 정선의 정경산수화를 모티브로 행성, 비행기, 오리 튜브, 열기구 등 재미있는 요소를 작품에 함께 담아내 유쾌한 동화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무료 관람, 오전 10시30분~오후 7시 30분.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미연 작 ‘Space time’

101번째 ‘골방 음악회’ 내일 카페 ‘반텀’

101번째 ‘골방 음악회’가 오는 30일 오후 7시 카페 ‘반텀’(광주시 동구 동계천로 83-2)에서 열린다.

3인조 ‘바닥 프로젝트’가 8년 4개월 동안 100회째 이어온 ‘골방 음악회’는 이제 광주지역의 다른 뮤지션들이 채워나가기로 했다.

이날 무대에는 2인조 ‘그란드’와 4인조 어쿠스틱 밴드 ‘센치한 버스’가 오른다. 두 그룹은 자작곡 등을 부를 계획이다. 무료로 입장하며 공연 뒤 원하는 만큼 후원을 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풍광 가득...kbc 광주방송 드라마 ‘환상의 타이밍’ 제작

이훈·브라이언 등 출연

kbc 광주방송이 28일 오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드라마 ‘환상의 타이밍’ 제작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연출을 맡은 장종훈 KM미디어 대표와 주연을 맡은 광주 출신 연기자 이훈과 허진, 가수 플라티너스스카이 출신 브라이언, 강세정씨가 발표회에 참여했다.

드라마는 광주·전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낼 예정이다. 10년 전 과거에서 딸과 함께 현재로 던져진 시간능력자 주인공이 사연 많은 의뢰인들과 차례로 시간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그렸다.

개국 23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kbc 광주방송은 앞으로 15부작 제작에 들어간다. 각본은 송유진 작가가 맡았



28일 오후 열린 kbc 광주방송 드라마 ‘환상의 타이밍’ 제작 발표회에 주연을 맡은 이훈·브라이언 등이 참여했다. /최해미 기자 choi@kwangju.co.kr

으며 공개 오디오션으로 선발된 주·조연급 연기자 40명이 등장한다.

kbc는 촬영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곳곳의 영상미를 담기 위해 영화를 찍을 때 사용하는 시네마4K 촬영기법을 활용한 다. 내년 가을 선보이는 이 드라마는 kbc

뿐만 아니라 CJB, G1강원지방, JIBSTV, JTV, KNN 등 전국의 지역 민영방송 채널을 통해 함께 방영된다. 또 브라운관 외에도 IPTV(인터넷 TV)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산문화시민포럼 내일 소춘아트팩토리

제1회 광산문화시민포럼이 30일 오후 1시 소춘아트팩토리에서 열린다.

광산구가 운영하는 소춘아트팩토리(센터장 강혜경) 개관 3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을 주제로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서는 ‘예술을 매개

로 한 공간 재생’(황순우 팔복예술공장 디렉터),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윤현석 광주일보 기자), ‘유휴공간의 문화재생과 문화적 도시재생’(최정환(사)공간문화센터 대표)가 발제를 하며 황진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장), 선재규(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씨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문의 062-960-3685.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